

#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## CATI & ARS

제78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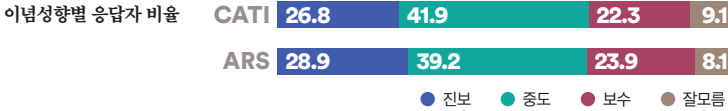
제93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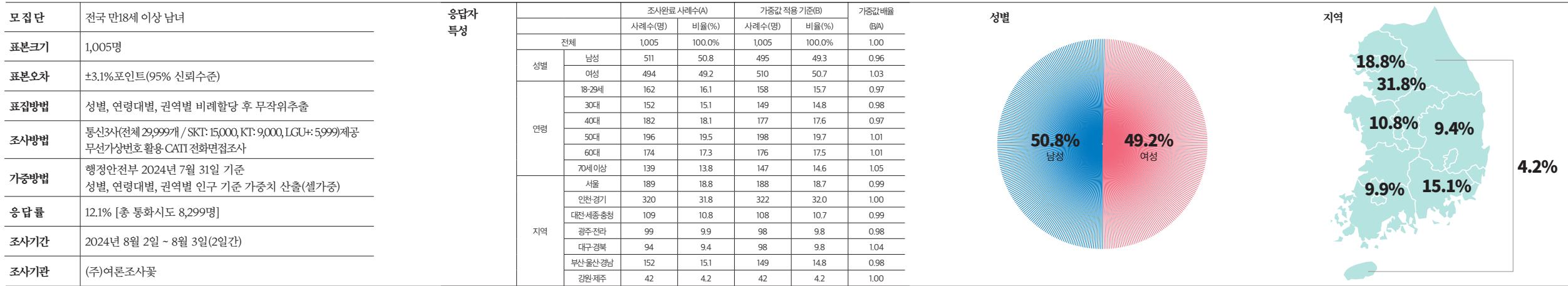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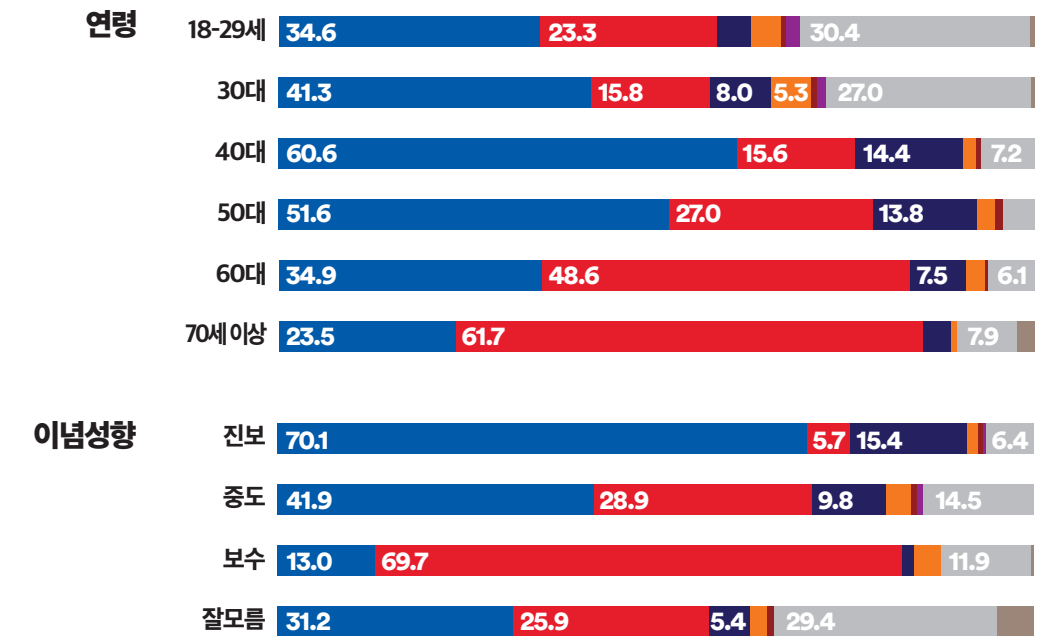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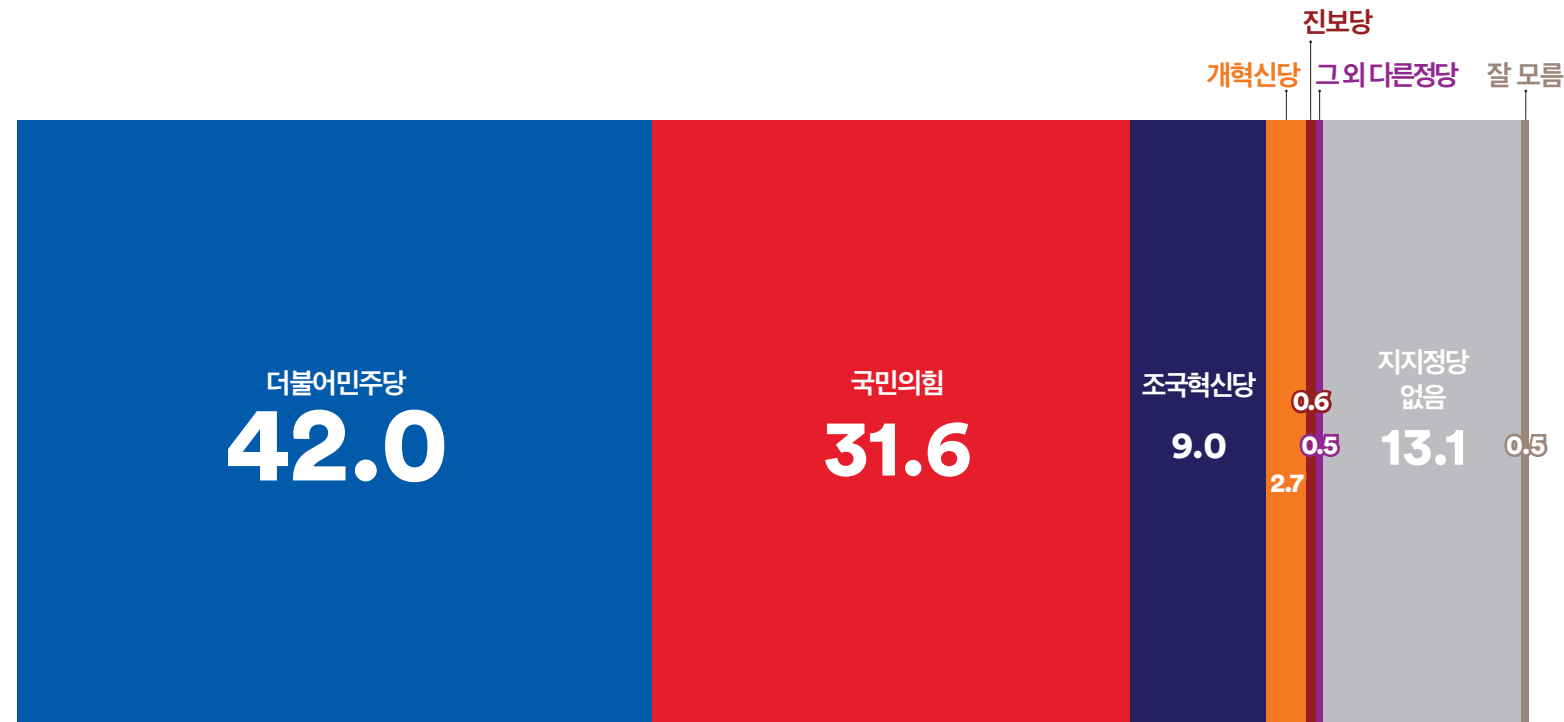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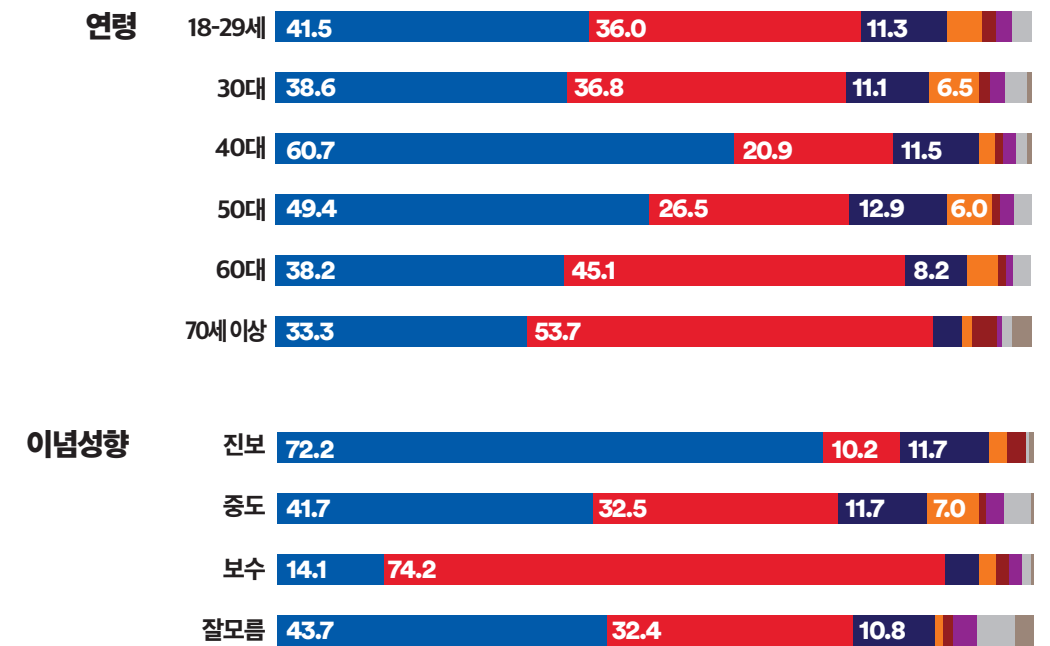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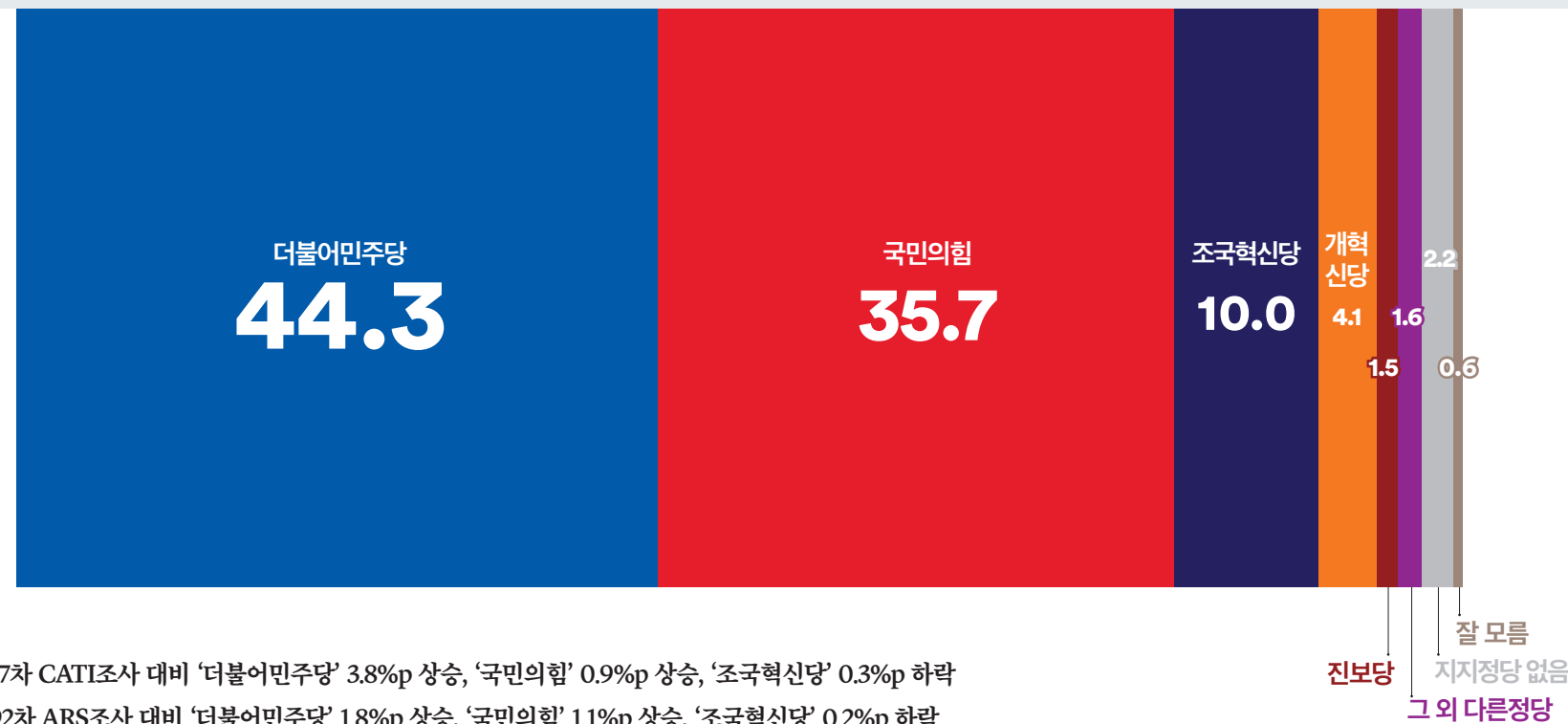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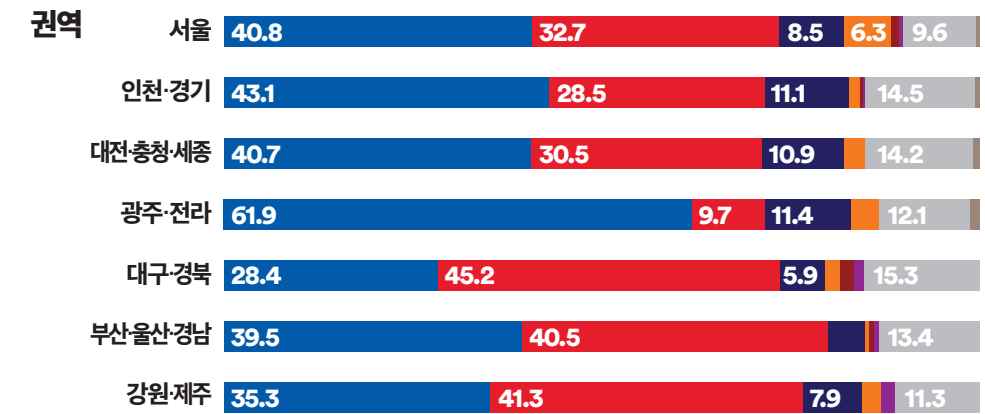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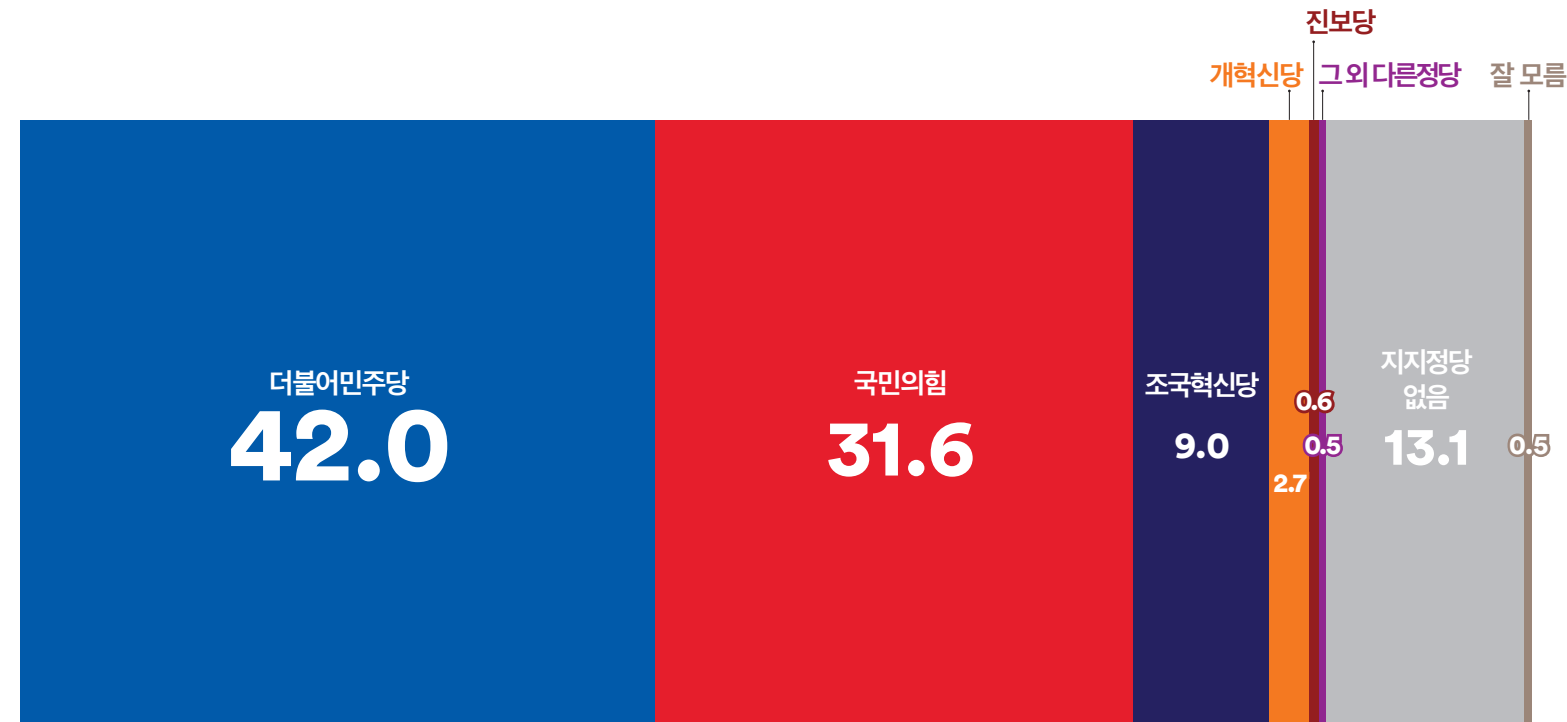


77차 CATI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3.8%p 상승, '국민의힘' 0.9%p 상승, '조국혁신당' 0.3%p 하락  
 92차 ARS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1.8%p 상승, '국민의힘' 1.1%p 상승, '조국혁신당' 0.2%p 하락  
 '더불어민주당': '국민의힘' 간 격차는 CATI 10.4%p, ARS 8.6%p(지난주: CATI 7.5%p, ARS 7.9%p)  
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 간 격차는 CATI 19.4%p, ARS 18.6%p(지난주: CATI 16.8%p, ARS 18.1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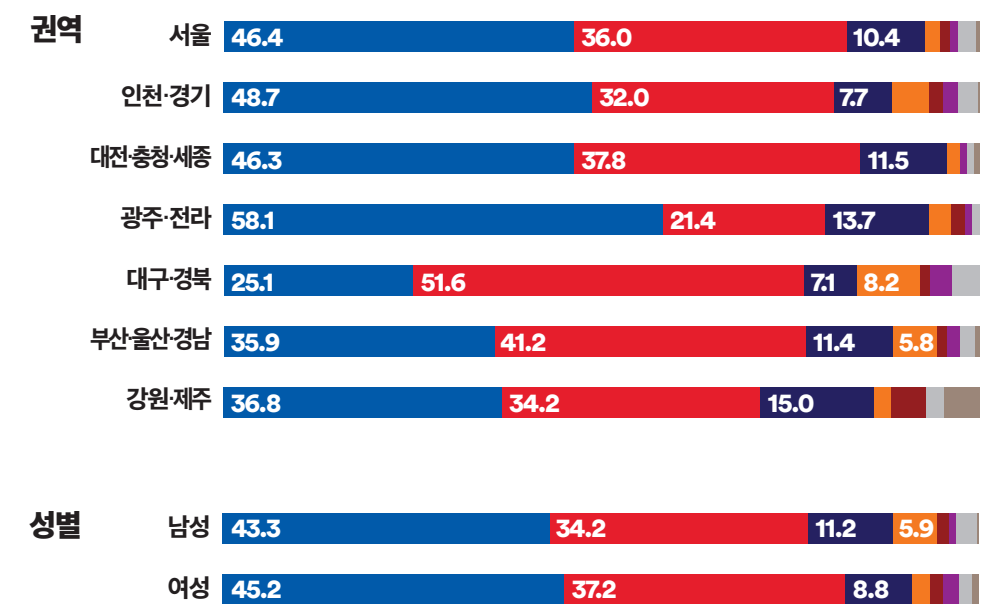
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 
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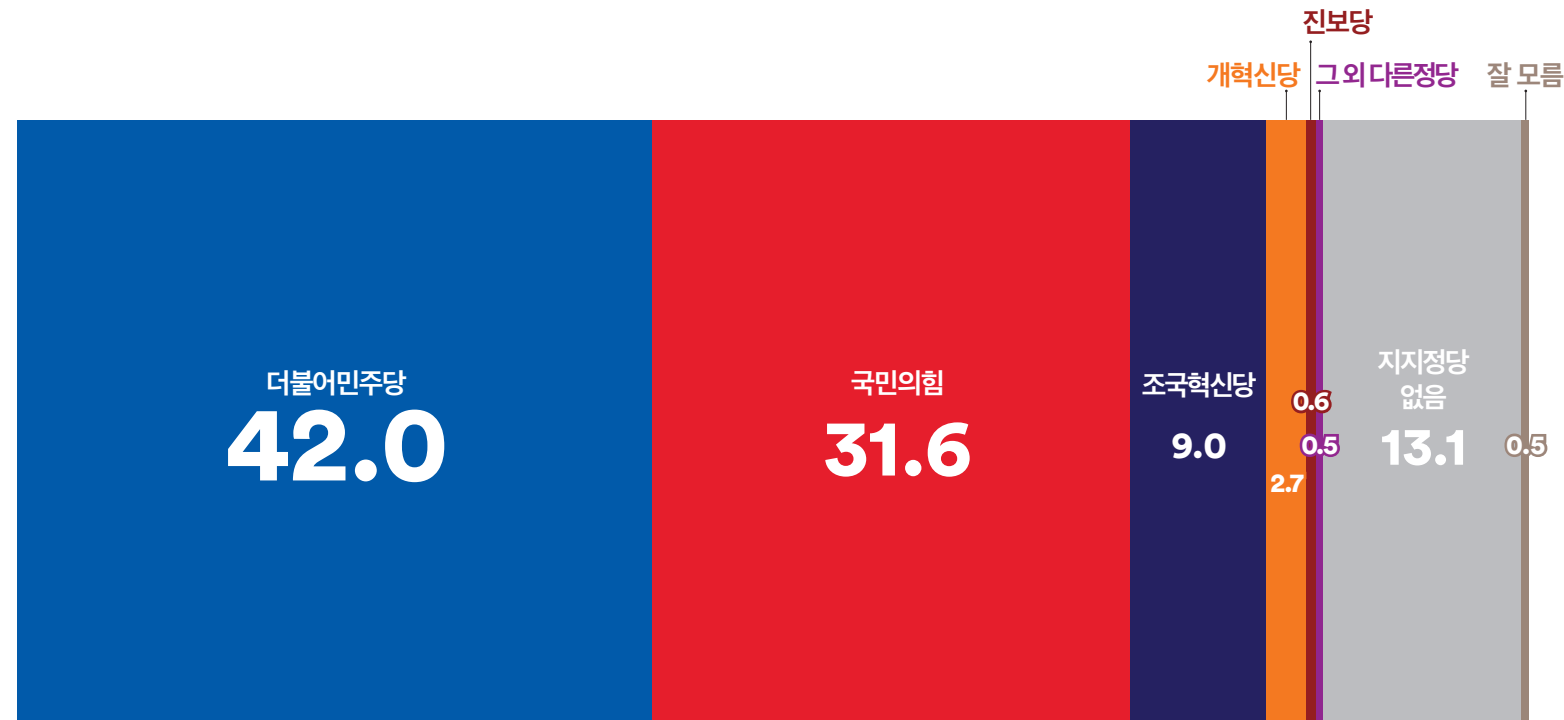


‘국민의힘’·‘더불어민주당’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‘더불어민주당’이 경인권과 호남권에서 우세  
 ‘국민의힘’·‘더불어민주당’+‘조국혁신당’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및 충청권, 호남권에서 우세  
 ‘국민의힘’은 TK권역에서 ‘더불어민주당’, ‘더불어민주당’+‘조국혁신당’ 대비 앞서거나 우세를 보임  
 성별에 따라, ‘더불어민주당’ 단독으로는 두 조사 모두 ‘국민의힘’ 대비 앞서고, ‘더불어민주당’+‘조국혁신당’은 ‘국민의힘’ 대비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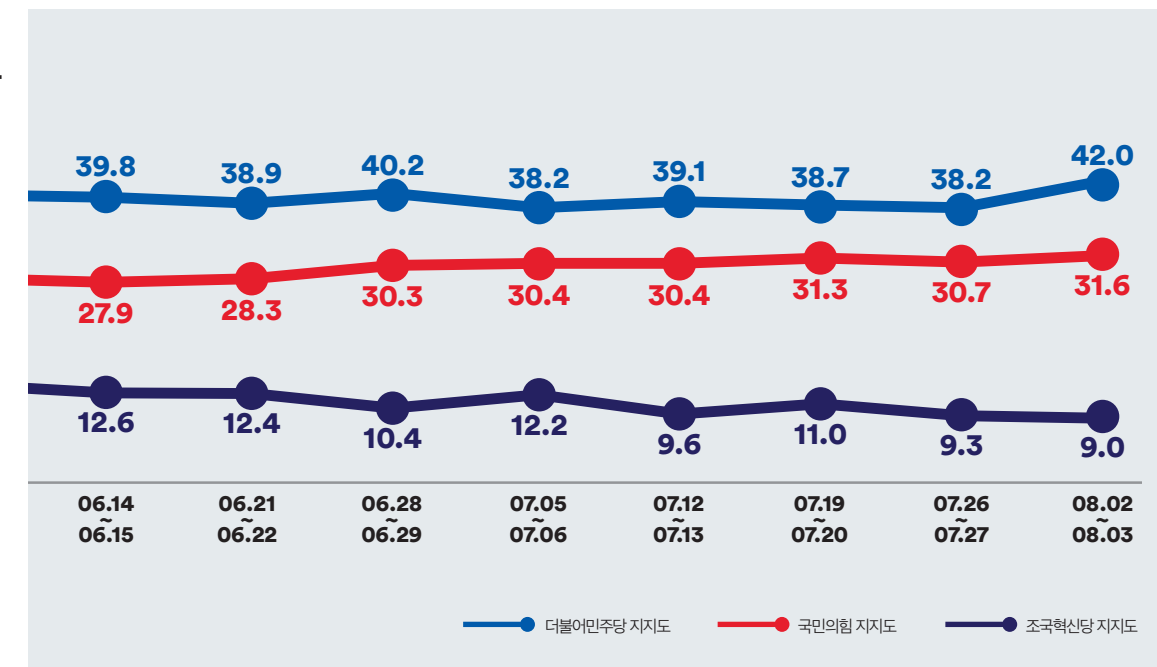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■ 국민의힘 ■ 조국혁신당 ■ 개혁신당  
■ 진보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지지정당 없음 ■ 잘 모름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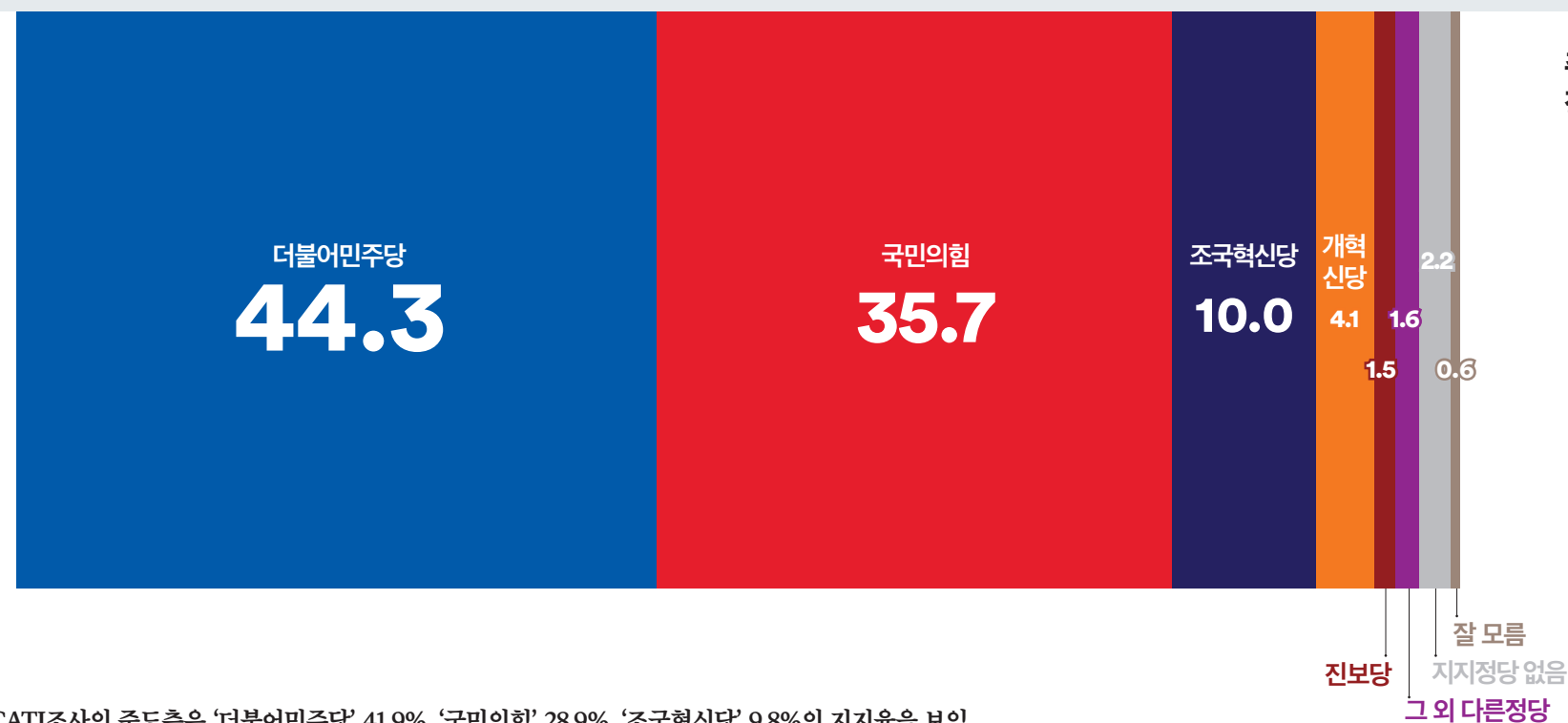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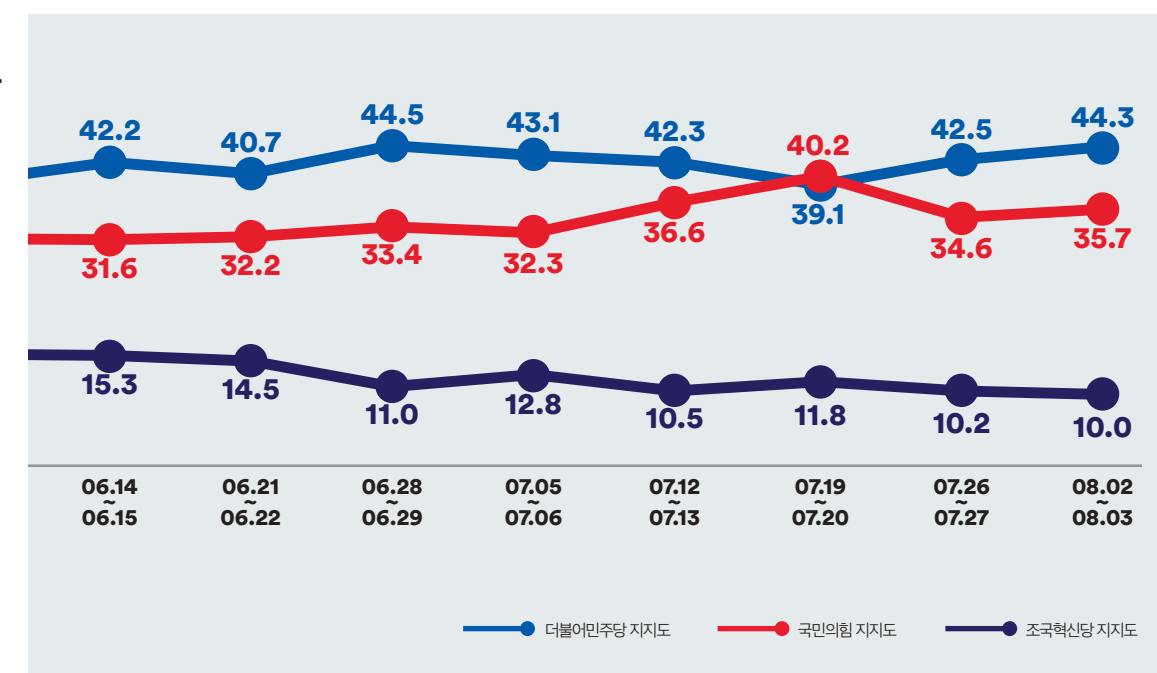
주차별  
정당지지도



ARS



주차별  
정당지지도



CATI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1.9%, '국민의힘' 28.9%, '조국혁신당' 9.8%의 지지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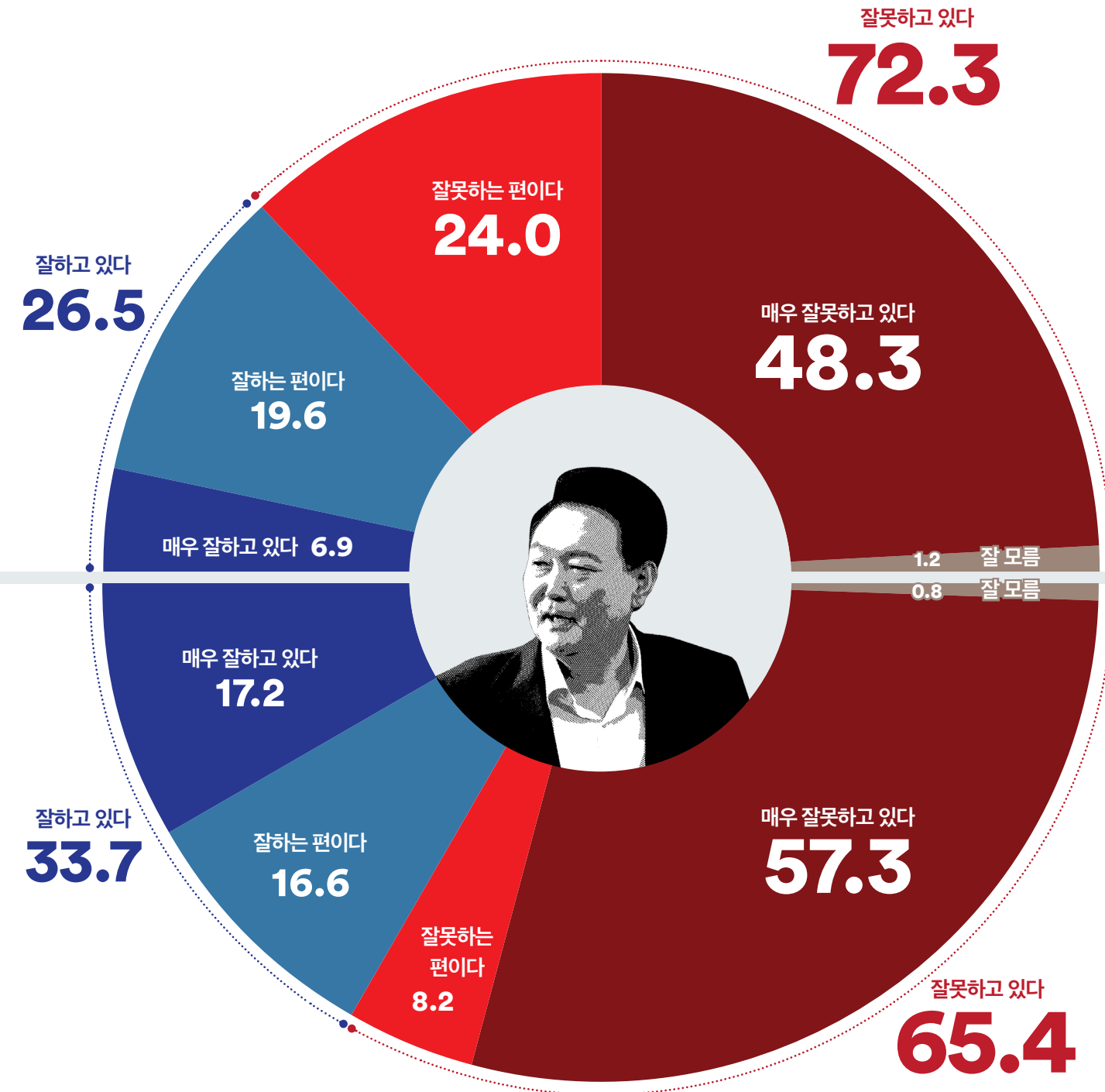
ARS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1.7%, '국민의힘' 32.5%, '조국혁신당' 11.7%의 지지율을 보임

중도층에서의 양 세력(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)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2.8%p(77차: 30.7%p), ARS 20.9%p(92차: 24.9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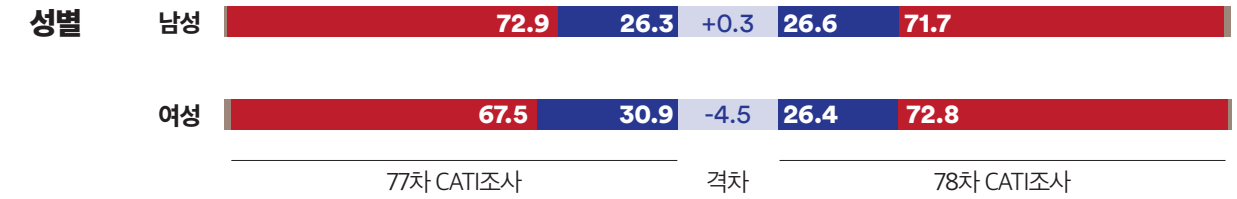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■ 국민의힘 ■ 조국혁신당 ■ 개혁신당  
■ 진보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지지정당 없음 ■ 잘 모름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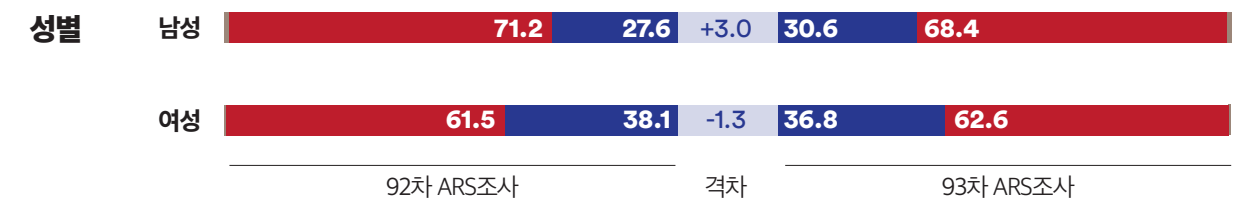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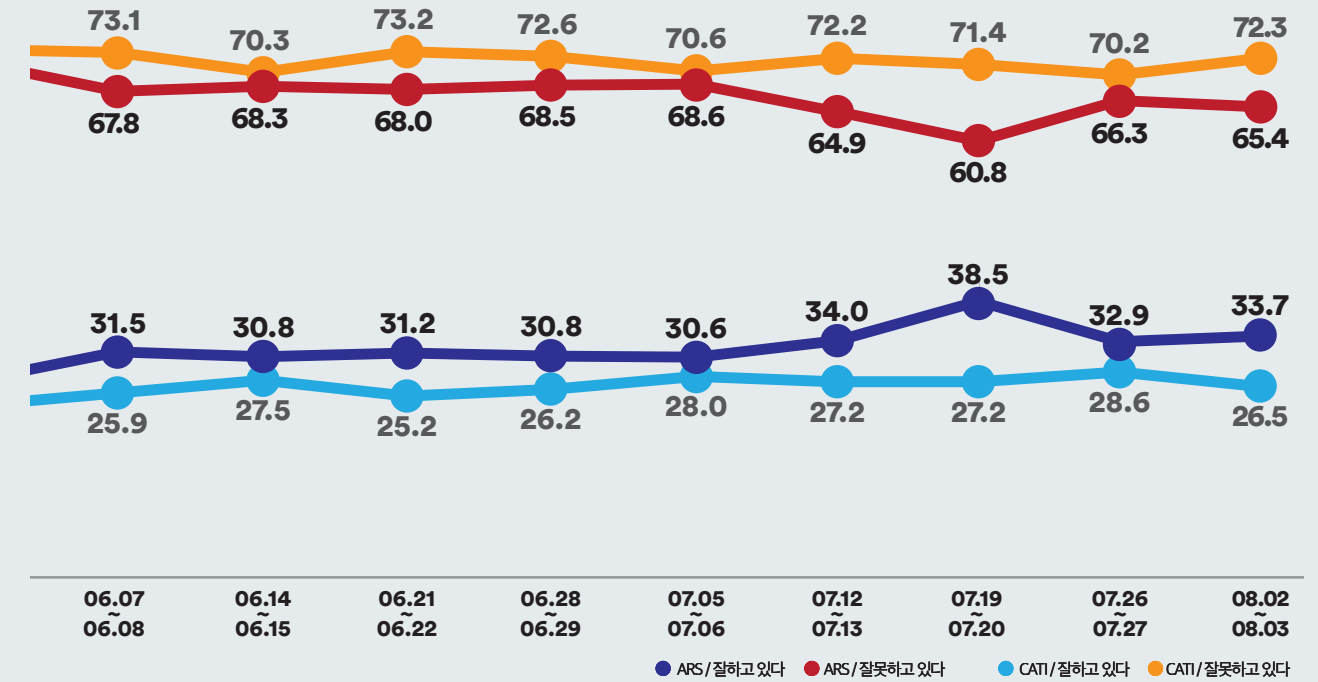
CATI



지난 77차 CATI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21%p 하락, '부정' 평가 21%p 상승(격차 45.8%p)  
 지난 92차 ARS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0.8%p 상승, '부정' 평가 0.9%p 하락(격차 31.7%p)  
 두 조사의 모든 권역, 남·녀 모두, 60대이하 연령층에서 '부정' 평가 앞서거나 우세  
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5.7%p(지난 조사: 58.3%p), ARS 38.9%p(지난 조사: 42.8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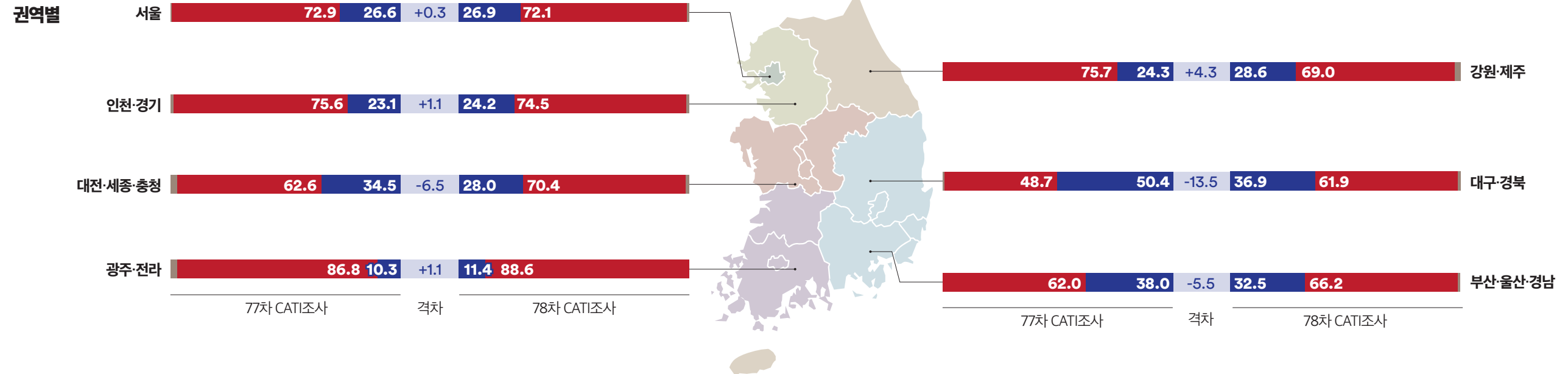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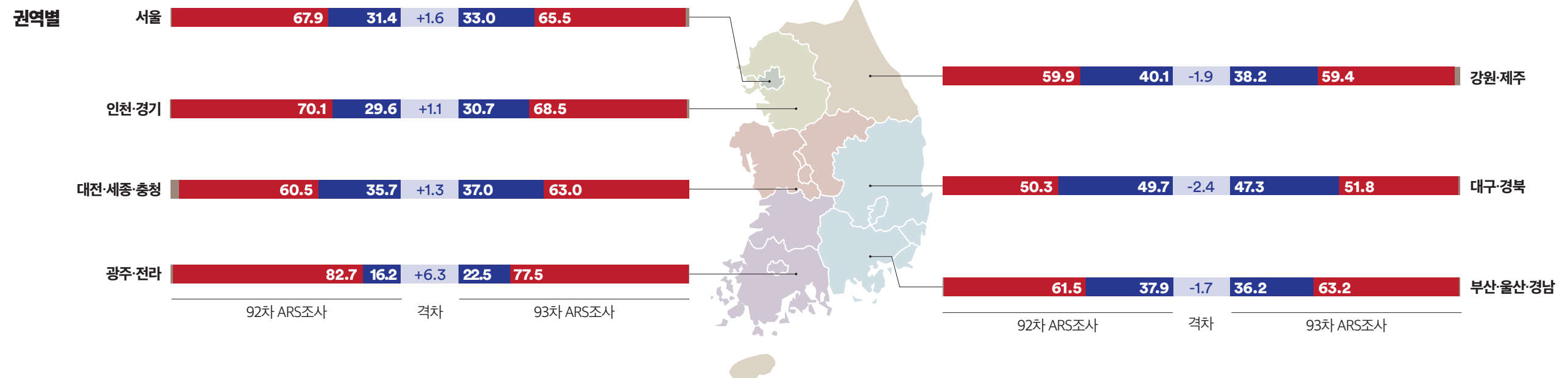
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## CATI



## 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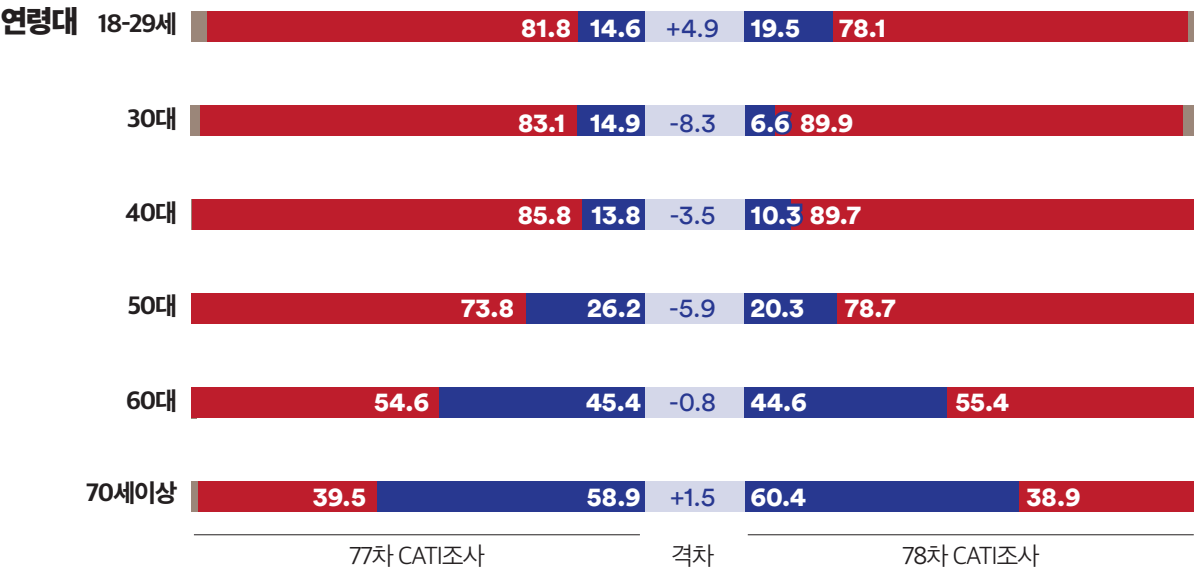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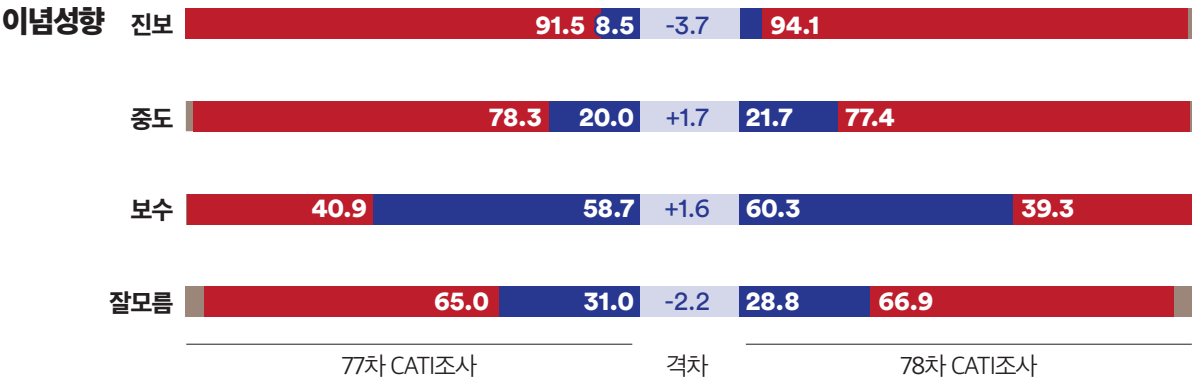


격차    잘하고 있다    잘못하고 있다    모르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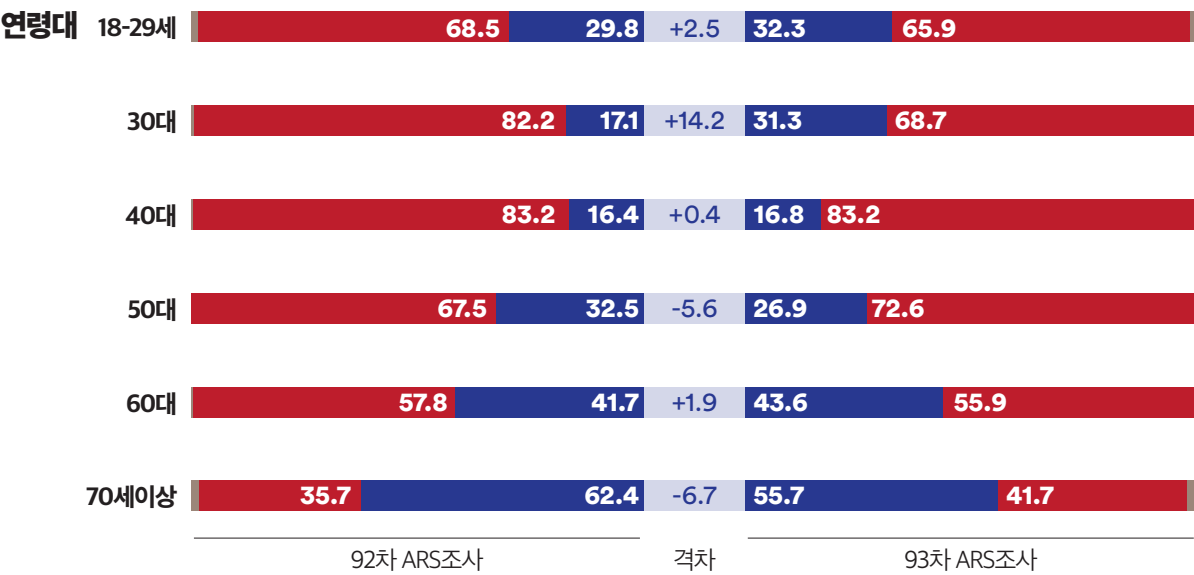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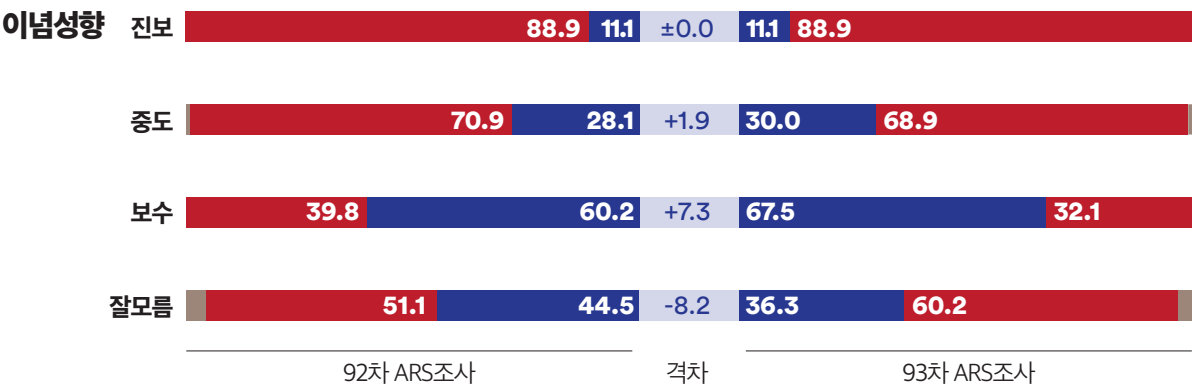
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ARS



격차    잘하고 있다    잘못하고 있다    모르겠다



Q.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확정했습니다.

제2부속실이 김건희씨 관련 논란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?

“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.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다”  
“외교 등에서 상대국 정상을 부부 동반으로 만날 경우 국제 프로토콜에 맞게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원해주면 되고 가족들 경호도 (경호실이) 하는 것이니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”

[2021년 12월 22일, 동아일보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인터뷰 내용 갈무리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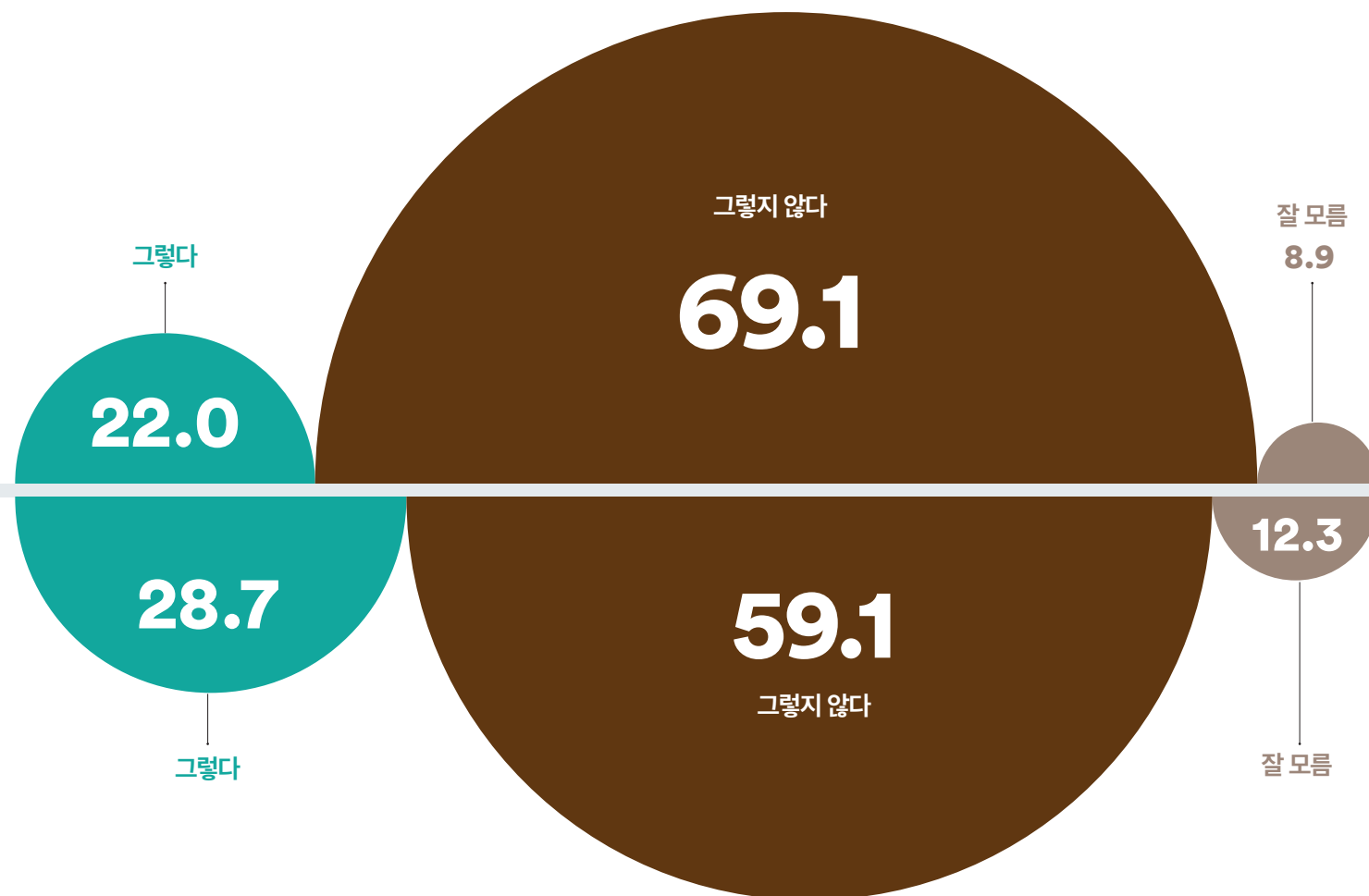
“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”

[2024년 2월 KBS 특별대담 ‘대통령실을 가다’, 윤석열 대통령 발언]



CATI

ARS



CATI조사는 10명 중 7명 정도, ARS조사는 10명 중 6명 정도가 ‘그렇지 않다’라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 47.1%p, ARS 30.4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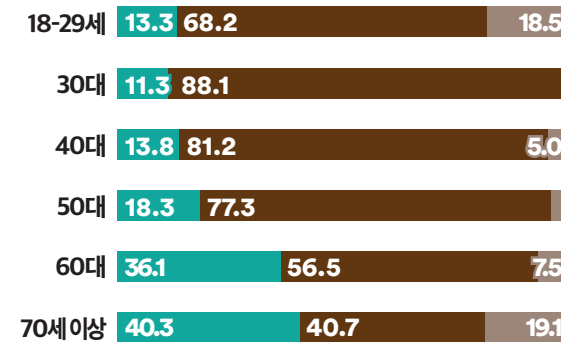
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‘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’이라는 응답이 앞서고

CATI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 및 모든 권역에서 ‘그렇지 않다’라는 응답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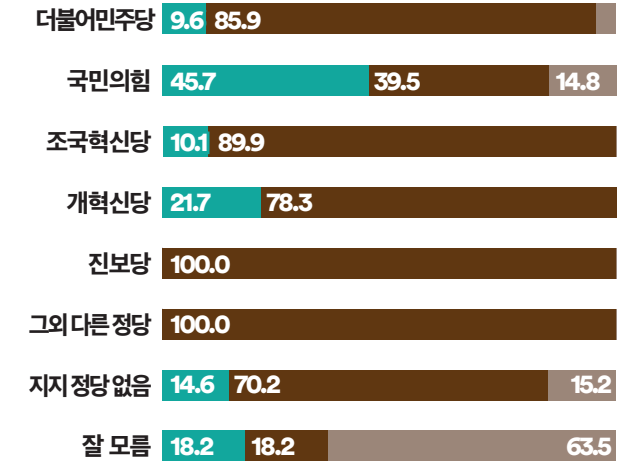
ARS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 및 TK와 강원·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권역에서 ‘그렇지 않다’라는 응답 우세

7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두 응답이 백중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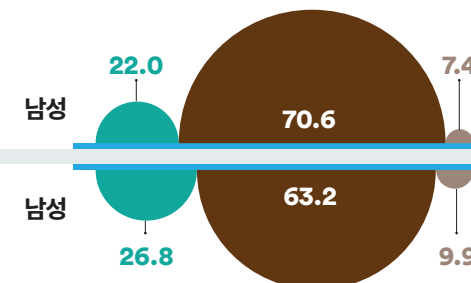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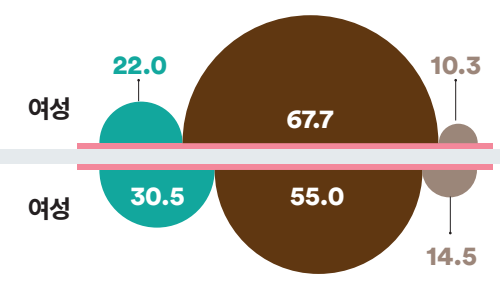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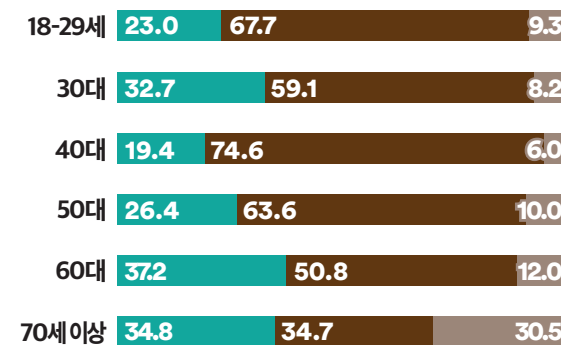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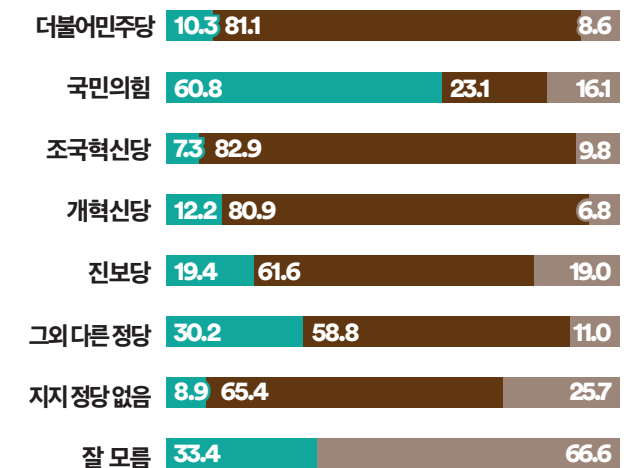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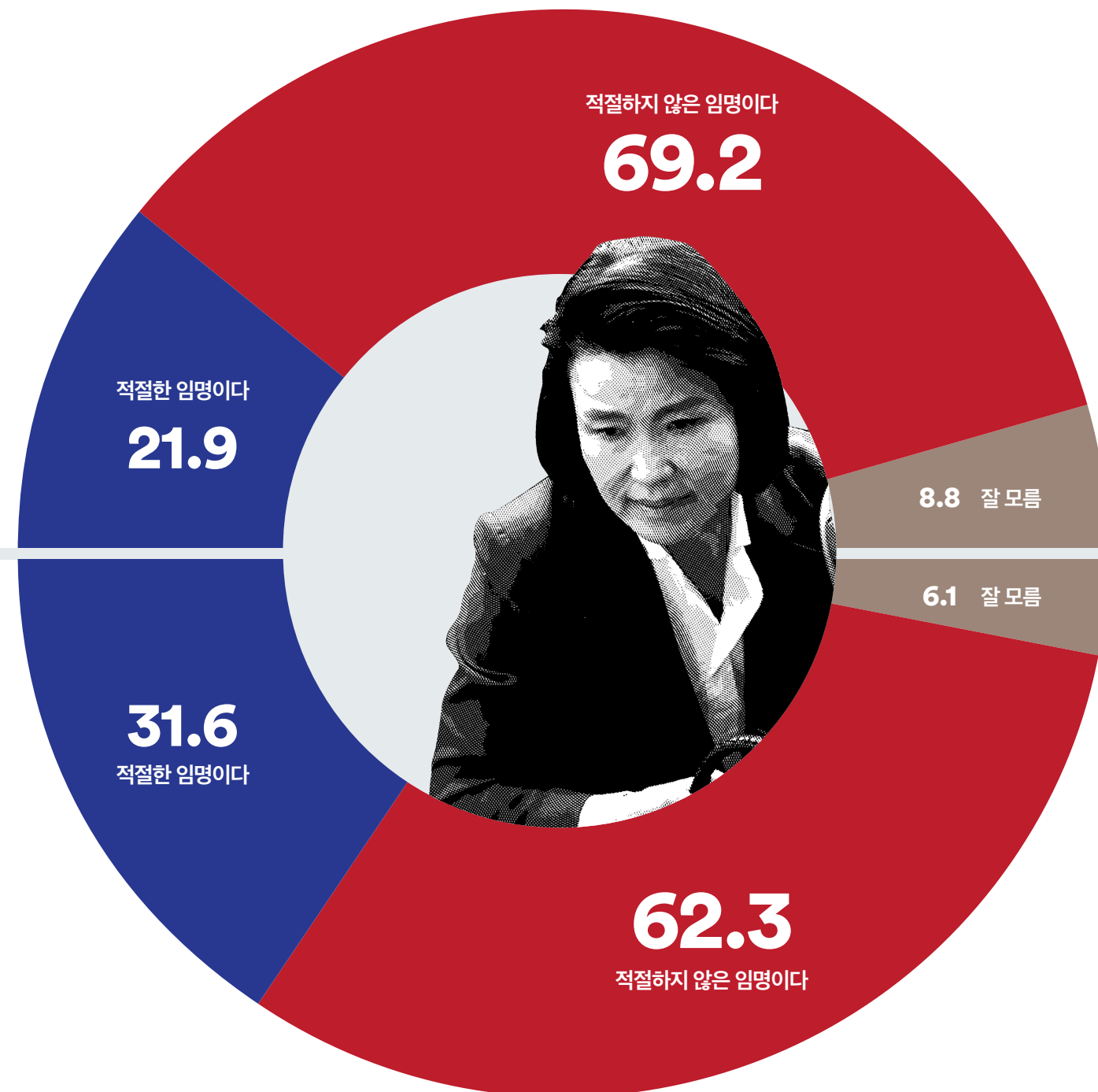
그렇다    그렇지 않다    잘 모름



Q.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.  
이진숙 위원장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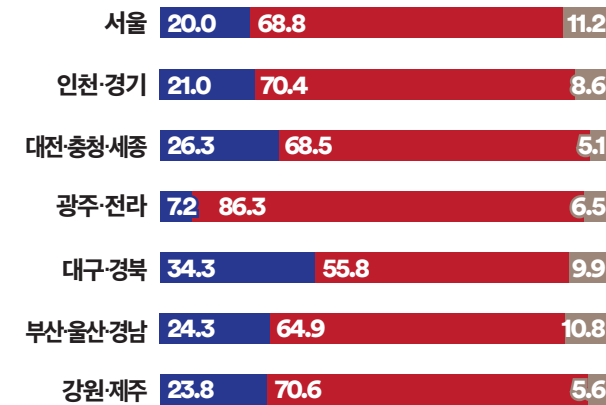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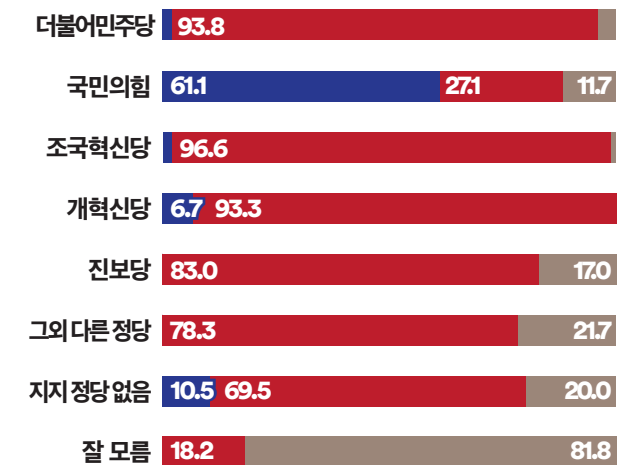
CATI조사는 10명 중 7명 정도, ARS조사는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'적절하지 않은 임명'이라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 47.3%p, ARS 30.7%p)  
두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, ARS의 TK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'부적절한 임명'이란 응답 앞섬  
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'적절한 임명'이란 응답이 우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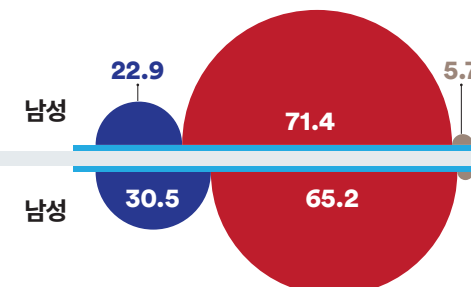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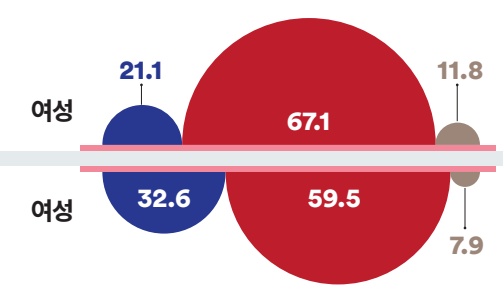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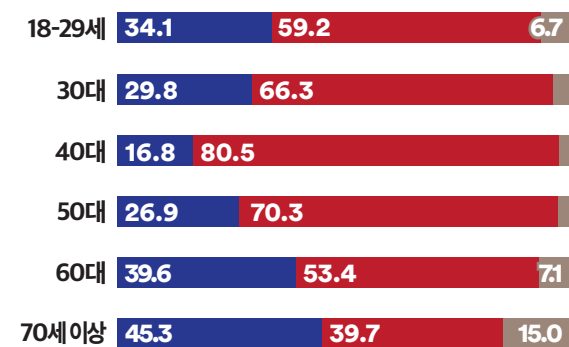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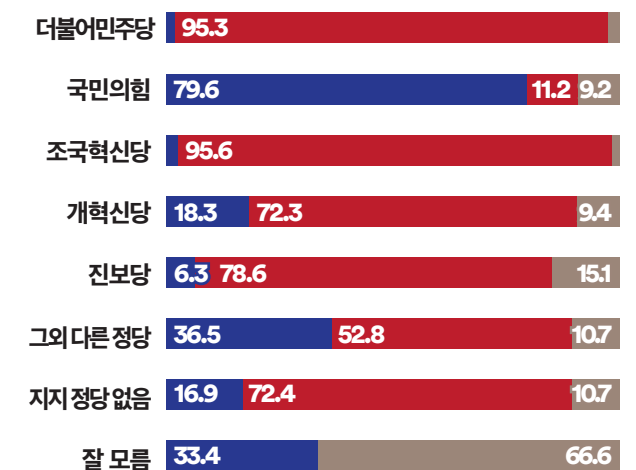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\*77차 CATI조사 / 92차 ARS조사  
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

적절한 임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임명이다 잘 모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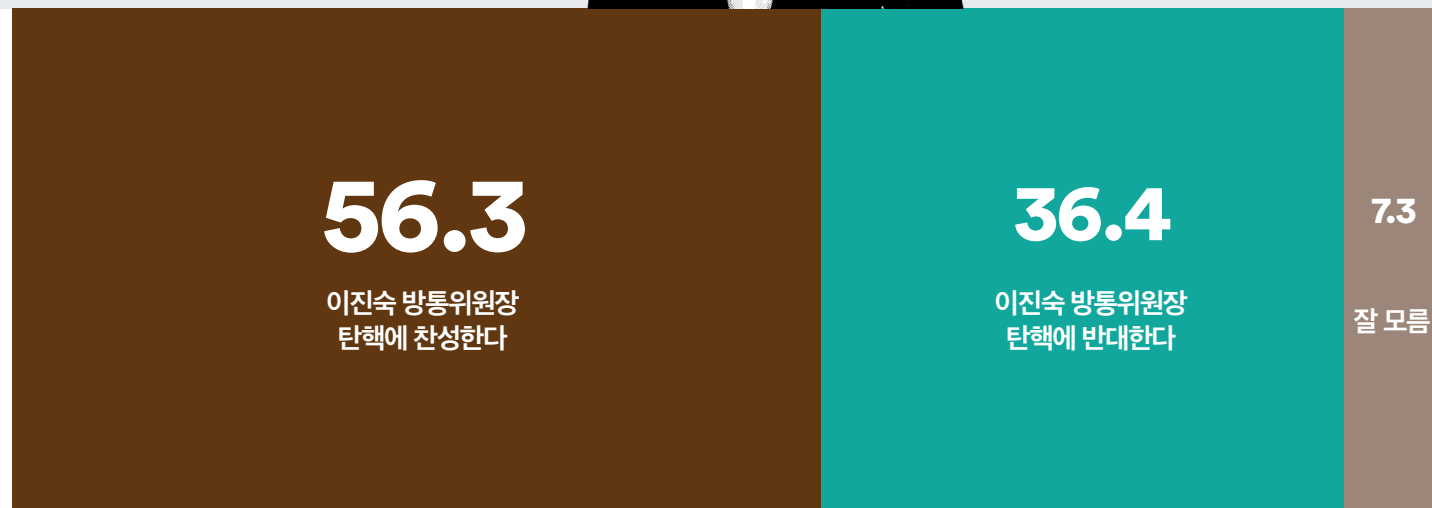
이진숙 위원장 탄핵 찬반

Q.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KBS·방문진 이사장 교체를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5인 합의체인 방통위에서 두 명으로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결의했습니다.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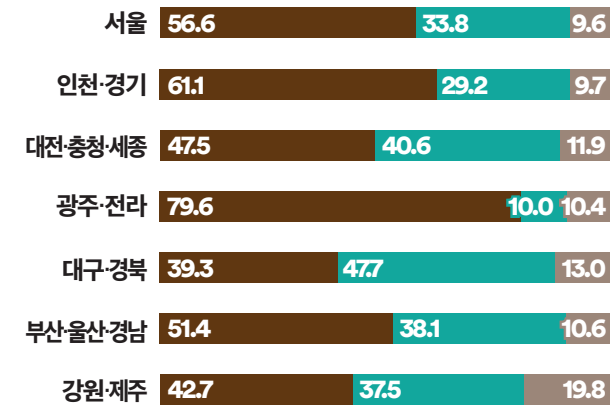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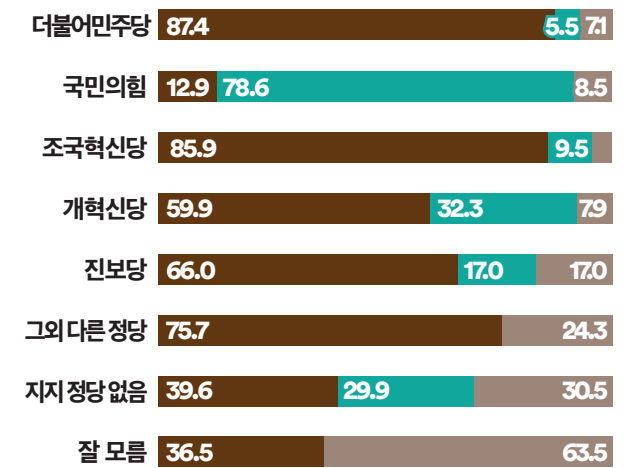


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'탄핵에 찬성한다'고 응답 (응답간 격차: CATI 23.3%p, ARS 19.9%p)  
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 및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'탄핵에 찬성한다'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 
두 조사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, 진보·중도층에서는 모두 '탄핵 찬성' 응답이 우세  
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'탄핵 반대' 응답이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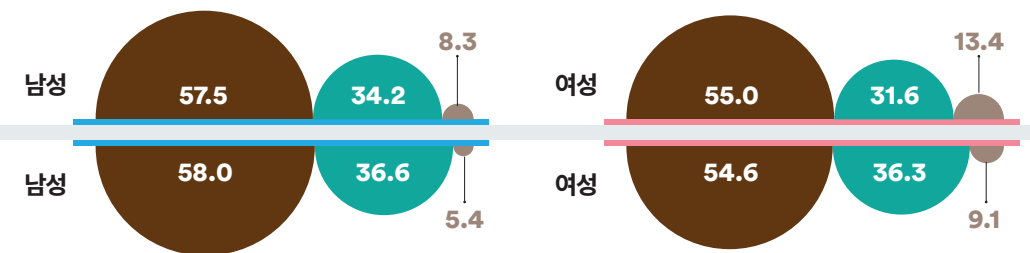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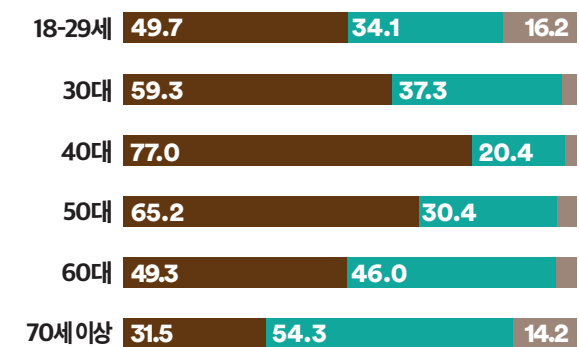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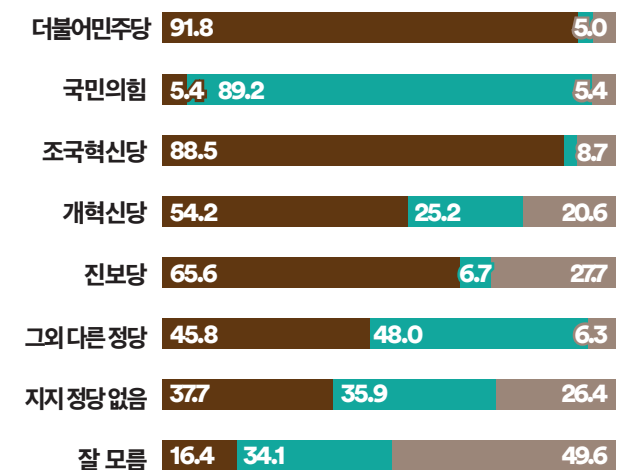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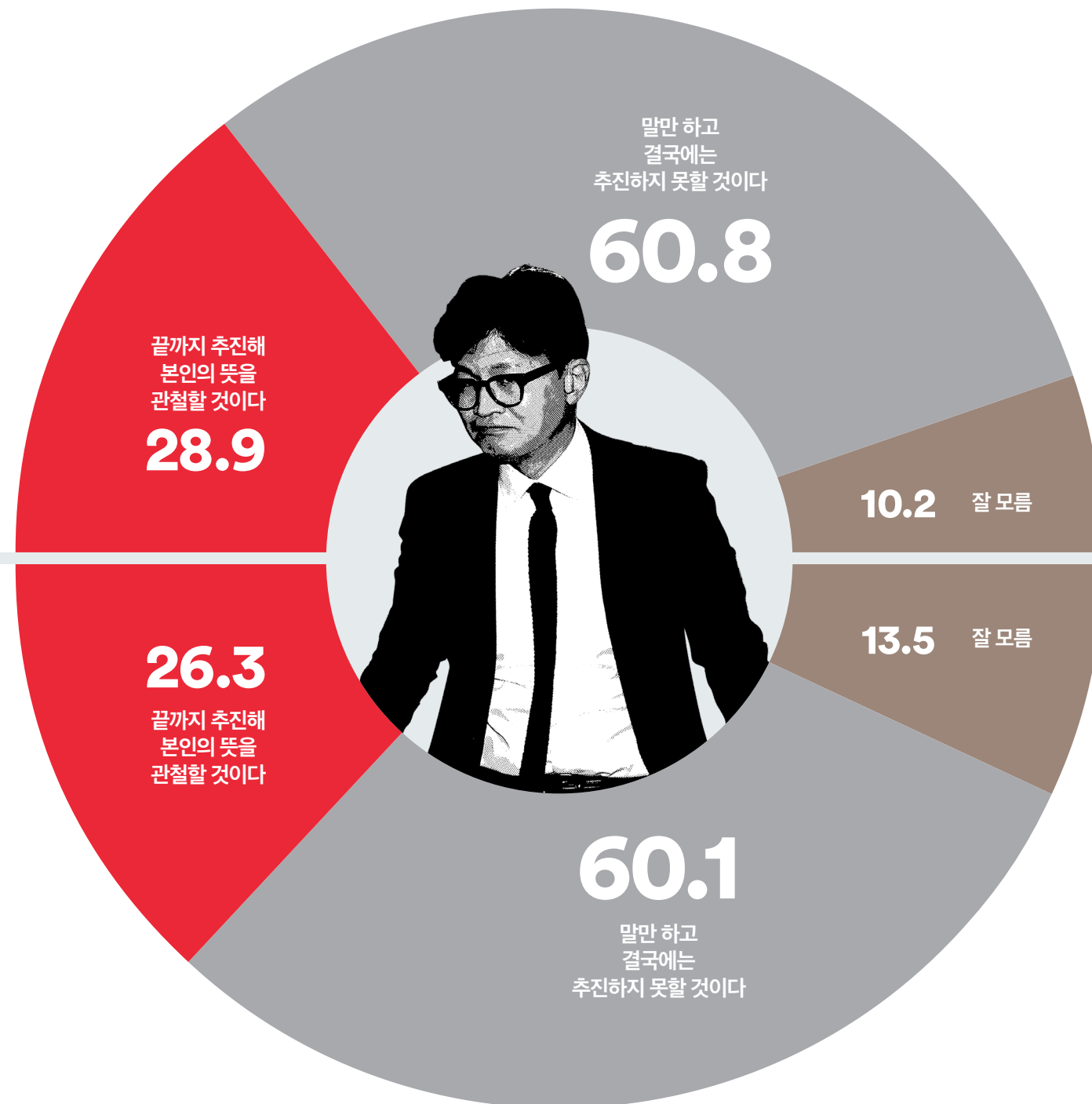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■ 탄핵에 찬성한다 ■ 탄핵에 반대한다 ■ 잘 모름

Q.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‘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,  
이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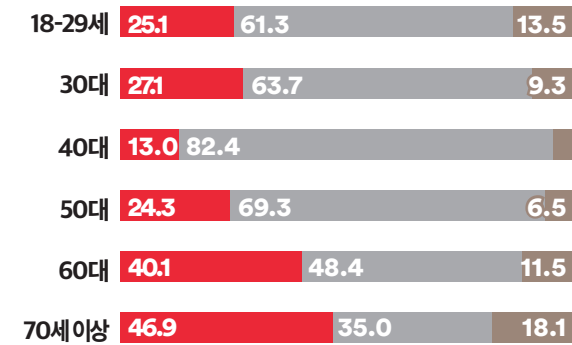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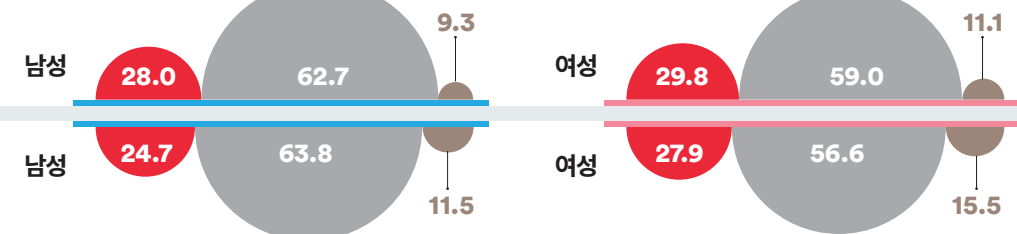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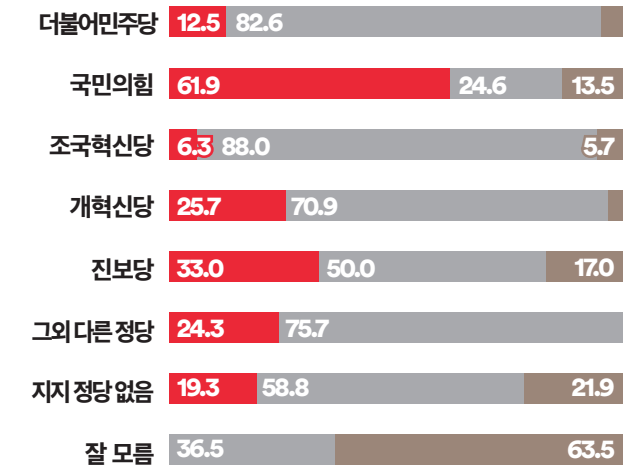
ARS

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‘말만 하고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’이라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 31.9%p, ARS 33.8%p)  
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‘끝까지 추진 못할 것’이란 응답이 앞섬  
국민의힘 지지층은 ‘끝까지 추진할 것’이란 응답이 우세, 보수층은 ‘끝까지 추진할 것’이란 응답이 소폭 앞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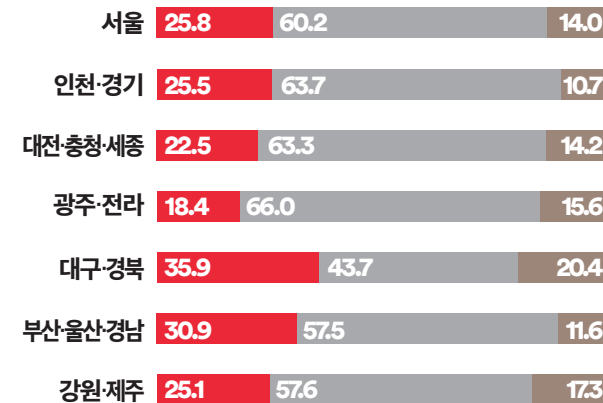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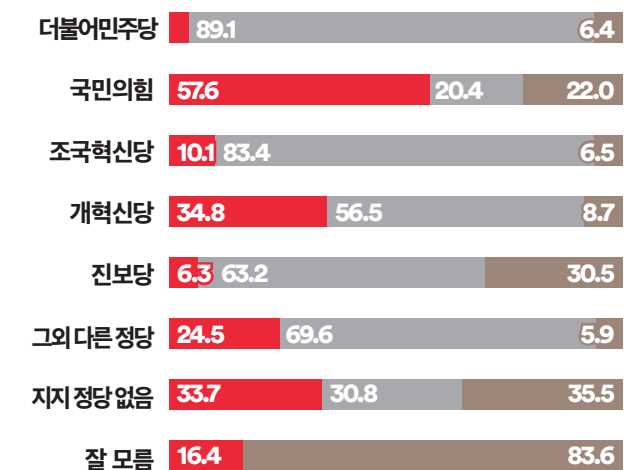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권역



정당지지도



본인의 뜻을 관철할 것이다 (red),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(gray), 잘 모름 (brown)



WWW.  
FLOWERRESEARCH.  
COM

---

#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---

WR\_202408\_01

---